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복지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남현주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2024. 4. 5.(금)
- 회부일자: 2024. 4. 5.(금)
- 검토기간: 2024. 4. 8.(월) ~ 4. 12.(금)

2. 제정이유

-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7조~8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 자살, 범죄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 수는 53만 8,000명 (5%)으로 2019년 33만 4,000명(3%)보다 2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세대를 막론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생애주기별 지원보다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만을 지원하다가 방치된 중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 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중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¹⁾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입법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일본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40세가 넘는 ‘중년 히키코모리’가 61만 명(40세에서 64세까지)으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은 은둔기간이 7년이 넘었다.(2019년 4월 12일, 매일경제)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